



# CMM JAPAN & JSP 2001

이 성 규 / 대진기계공업(주) 기술부

전시회 CMM JAPAN & JSP2001에 다녀와서 포장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쇄기 업체와 그와 관련된 제품 및 다른 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플렉소 인쇄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시회 관람에 참여하신 여러 분들의 말씀이 현 유럽의 인쇄 기술의 추세는 간단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바로 플렉소 인쇄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GRAVURE 인쇄기와 플렉소 인쇄기는 인쇄 방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GRAVURE 인쇄기 또한 그만의 전문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스티커를 인쇄하는 소형의 인쇄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우선은 기계자체가 소형이어서 작업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형 기계는 인쇄는 물론이고 접합에서 CUTTING까지 한 기계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보면서 누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GRAVURE 인쇄기에 이 소형기계의 원리를 접목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이다.

특히 전시회에서 눈 여겨볼 수 있었던 것은 출품된 GRAVURE 인쇄기, COATER기 및 다른 포장기계들이 전반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작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부피가 작다는 것은 곧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시회에 출품된 업체 중 ORIENT사의 경우를 보면 누구나 다같이 공감을 할 것이다. 우리의 GRAVURE 인쇄기의 경우는 WINDER FRAME이 있고 INFEEDING UNIT가 서지만 이 업체의 경우는 이를 하나로 접목시킨 것이다.

즉 INFEEDING UNIT에 WINDER가 붙어 있는 것이다.

물론 REWINDER와 OUTFEEDING 또한



▲ 전시장 내부



◀ CMM JAPAN & JSP 2001  
한국참관단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기계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포장이란 각국의 사정과 경제수준 및 유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욕에 호소하여 판매를 추진하는 상업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허나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 면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아무리 포장에 호소력이 있고 화려할 지라도 제작비용이 많이 들면 그 가치를 발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쇄기 자체에 대한 원가를 줄여 포장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일본의 기술력과 우리의 기술력의 차이는 크다. 하지만 포장기계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 면에서는 우리와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물가가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현대 일본은 이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또 하나의 어려운 숙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는 하지만 실력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면서 기교를 부리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현재 몇 년째 우리나라의 경기는 굉장히 침체돼 있다.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질까 하고 방관만 하는 이런 자세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버렸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헤쳐나가 자랑스럽게 세계에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